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루카 6,36)



[제1독서] 사무 26,2.7-9.12-13.22-23

[화답송] 시편 103(102),1-2.3-4.8과 10.12-13
(◎ 8ㄱ)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
-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아버지가 자식을 가여워하듯,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 가여워하시네. ◎

[제2독서] 1코린 15,45-49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복음] 루카 6,27-38

[성가 안내]

- 입당성가: [61] 주 예수와 바꿀 수는 없네
- 봉헌성가: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 성체성가: [504] 우리와 함께 주여
[158]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 파견성가: [15] 주님을 찬미하라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7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 주고,

28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29 네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네 겹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30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31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32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33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 주는 이들에게만 잘해 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34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꾸어 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꾸어 준다.

35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36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37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38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묵상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사랑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실천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여라.”와 “네 원수를 사랑하여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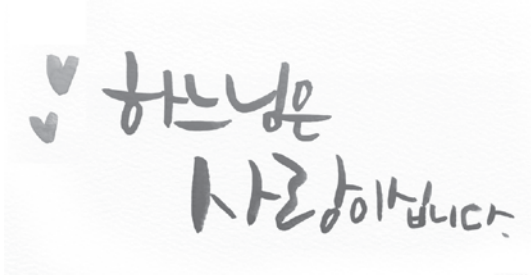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도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만, 원수까지 사랑하고 원수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어야 한다는 말씀은 참으로 이상하고, 충격적이고,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악에 맞서서 악과 싸우고, 악을 응징함으로써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논리가 훨씬 마음에 와 닿고 실천하기도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과 함께 원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역사 안에서 언제나 옳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가르침이 있었기에 사회 안에서도 인권이 존중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져 왔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내세운 폭력과 권력은 오히려 인권과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는 부작용을 낳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실현하신 하느님 나라는 결국 악에 대한 선의 승리를 뜻합니다.

물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곧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가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어찌 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하시며, 또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남에게 베푼 대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이며, 우리가 준 것보다 더 후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을 받기보다는 주려고 애쓰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성근 사바 신부)



복음 묵상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루카 6,36)

루카 복음 6장 36절을 참조한 모토 “하느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이” (Misericordes sicut Pater)는 남을 심판하거나 단죄하지 말고 넘치게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요청하시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자비의 본모기를 따르라는 초대이다(루카 6,37-38 참조).

루프니크 신부(Fr. Marko I. Rupnik)의 작품인 이 로고는 자비라는 주제를 요약한 ‘신학대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로고는 초대 교회에서 상당히 소중했던 형상을 보여준다. 곧 구원으로 강생의 신비를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로고는 착한 목자께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랑으로 인간의 육신을 깊이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로고에서 눈에 띄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착한 목자께서 당신의



크신 자비를 드러내시며 인류를 어깨에 짊어지시는 가운데, 당신의 눈과 아담의 눈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눈으로 보시고, 아담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여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아담, 각자의 인성, 다가올 미래를 발견하게 된다. 이 모습은 고대와 중세 시대 성상에서 소중하게 여겨진 요소인 만돌라(mandorla, 편도[扁桃] 형상) 안에 그려져,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이 현존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세 개의 타원형은 작은 원에서 더 큰 원으로 나아갈수록 그 색깔이 밝아져서, 인류를 죄와 죽음의 어둠에서 꺼내 주시는 그리스도의 역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반대로 안을 향해서 그 색깔이 점점 짙어지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아버지를 닮았네”



하늘을 사랑하는 아이에게 가장 큰 칭찬은
‘너는 하늘 같은 마음을 가졌네’
꽃을 사랑하는 아이에게 가장 큰 칭찬은
‘너는 꽃처럼 향기롭구나’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이에게 가장 큰 칭찬은
‘너는 아버지를 닮았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뵈었다.” (요한 14:7)

임의준 신부 (가톨릭 신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김수환 추기경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도
한 번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려고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 ‘처럼’이라는 말의 뜻도 깊이 새겨 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도저히 예수님처럼의 그 ‘처럼’ 없이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왔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도처에서 “나처럼 되라” 고 하였고,
이 말씀을 빼면 복음에서 진수를 빼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나를 전적으로 버리면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완전히 비우고 조건 없이 내주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닮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남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뜻입니다.

〈김수환 추기경, 하느님과 함께 5분〉





“하느님과 거짓된 관계를 갖지 마십시오”

▼ ▼ ▼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8년 6월 13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수요 일반알현을 통해 십계명에 관한 교리 교육을 시작했다. “하느님의 열 가지 말씀들”에 담긴 뜻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기를 지향하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십계명 교리 교육> 중 주요 부분을 요약해 싣는다.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탈출 20,7)에 대한 계명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명확한 의미는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혹은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이 귀중한 말씀을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부르지 말라(Non pronuncerai)”라는 말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서, 글자 그대로 번역하자면 “너는 그것을 스스로 취하지 않고, 너는 그것을 너 자신에게 짐 지우지 말라(non prenderai su di te, non ti farai carico)”라는 뜻입니다.

“부당하게(invano, 헛되이, 함부로)”라는 표현은 더욱 명확합니다. 그 뜻은 “텅 빈, 헛되게(a vuoto, vanamente)”입니다. 빈 봉투나 내용이 없는 양식을 나타냅니다. 이는 위선, 형식주의, 거짓말, 그리고 단어의 사용이나 하느님 이름을 사용하는데 나타나는, 비어있고 진리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름’은 사물, 특히 사람들의 친밀한 진리입니다. 이름은 자주 (그 사람의) 사명을 나타냅니다. 예컨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창세 17,5 참조)과 복음서들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요한 1,42 참조)는 자신들의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걸 드러내는 의미로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참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곧, 모세가 하느님의 이름을 아는 순간부터 그의 (삶의) 역사는 변합니다(탈출 3,13-15 참조).

유다인의 예식 안에서 하느님의 이름은 욥 키푸르(Yom Kippur, Giorno del Grande Perdono, 대속죄일)날에 장엄하게 선포되며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이름을 통해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생명과 접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이름을 취하는 것은” 하느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강한 관계를 맺고 하느님의 현실을 취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계명은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매일의 행동들을 하느님과의 친밀한 친교 속에서, 곧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번 십자성호를 그을 때마다 이를 확신합니다. 십자성호를 긋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십자성호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는 바로 어린이에게 있어 신앙의 첫 번째 행동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십자성호를 긋는 법을 가르쳐주는 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자문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이름을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텅 빈 상태로 취할 수 있는가? 대답은 불행히도 긍정적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거짓된 관계를 맺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여러가지를 행했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충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실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군중들처럼 우리는 하느님과의 거짓된 관계를 맺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거짓이나 위선으로 맺지 말라는 초대이며,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말기라는 관계로의 초대입니다.

결국 주님 안에서만 삶을 찾을 수 있다고 체험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 자신의 삶을 모험에 빠뜨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순히 이론만 말하는 셈입니다.

이것이 감동을 시키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성인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성인들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고, 여러 가지를 말할 때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인들 안에서 우리 마음이 절실하게 바라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곧, 진실성, 참된 관계,

근본적인 것들을 봅니다. 우리는 이를 “우리의 일상 안에 계시는 성인들” 안에서 봅니다. 예컨대 성실하고 단순하고 정직하고 관대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부모님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 청원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를 실천하면서, 거짓없이 하느님의 이름을 스스로 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나면, 교회의 (복음) 선포는 더 많이 듣고 더 믿을 만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체적 삶이 하느님의 이름을 나타내면, 세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몸과 그리스도의 몸 사이에 위대한 친교가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찬례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취하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끝까지 우리의 이름을,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약까지도 짚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용서하고, 당신 사랑을 우리 마음 안에 넣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메고 가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느님께서는 이 계명 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취했으니, 너도 나를 취하라(Prendimi su di te, perché io ti ho preso su di me).”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있을지라도, 충실하고 자비로운 사랑이신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청하는 이에게 결코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해야할 숙제로 돌아가 봅시다. 아이들에게 십자성호를 잘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느님의 이름을 취하는 것은” ...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http://www.vaticannews.va>>

SEVENTH SUNDAY in ORDINARY TIME February 24, 2019

Gospel LK 6:27-38 (See page 2) **Being Merciful**



<오 마리아 수녀의 주일복음그림 / 바오로딸 콘텐츠>



In today’s Gospel reading Jesus tells us to be more kind and generous to others than they are to us. He tells us that the way we treat others is how God will treat us.

Has anyone ever been unkind to you and you felt like getting even by being mean back? Jesus tells us that what we should do instead is be extra kind to that person. Sometimes we do mean or selfish things too, and we hope that God will forgive us.

What our Lord is talking about is called mercy. Mercy means being nicer to a person than they deserve. God is the most merciful of all and we should try our best to be like Him. Next time someone is mean to you ask Jesus to help you forgive that person and be kind to them.

<<http://www.thekidsbulletin.com>>

ANNOUNCEMENT

1 2019 Student Confirmation Class

- **Registration deadline is Sunday, February 24th, 2019**
- **Where :** Sunday School Office (Hasang Bldg.)
- **First Day of Class : Feb. 27 (Wed), 7:40-9:00pm,**
Hasang Bldg Rm #110
- **Parents’ Orientation : Mar. 13 (Wed), 8:00pm,** Hasang Bldg
- **Contact : Mrs. Yunchong Boyle (703) 371-3589**
spc15.re.admyc@gmail.com

2 VIRTUS training in Korean

- **When :** Feb. 27 (Wed), 6:30pm-9:30pm.
- **Where :** Hasang Bldg
- **Contact : Mrs. Yunchong Boyle (703) 371-3589**
spc15.re.admyc@gmail.com

본당 교우의 詩

제1회 <배정웅 문학상> 수상시

귀가 어두워지다

- 박 앤 안나 (워싱턴 문인회)



청력이 약해지면
사람들은 귀가 어두워졌다고들 한다
은연중에 내비치는 말일까
전구를 갈아 끼워 어둠을 밝히듯
귀도 밝힐 수 있다는 것인지

소리 서서히 멀어지고
문득 절벽 같은 어둠이 앞을 막아선 세상
잡다한 소음들이 사라진
공기 없는 우주의 한 별
그 별에 내쳐진 아득함을 아시는가

테스팅, 테스트.
아- 아- 들립니까, 들립니까.....

아침마다 어두운 귓속에 보청기를 밀어 넣고
호소하듯 혼잣말로 소리를 조절하며
귓속의 혼을 깨우는
저 간절한 기도

배정웅 문학상

배정웅 문학상은 한국 문단에서 수준 높은 문학성으로 존경받으며 미주 한인 시문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 2016년 타계한 배정웅 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배정웅 문학상 심사위원회는 2017-18년 사이 '미주시학'에 제출된 시 작품들을 대상으로 1월 중순 최종 심사를 갖고 박 앤 시인의 '귀가 어두워지다'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하상회

하상회 2월 월례회가 지난 17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열렸다. 43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백인현 주임신부는 환절기에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 정신 건강도 유의하기를 당부했다. 또 2월 생일을 맞은 회원들을 축하하며 새로 온 이윤노 형제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어진 '치매' 특강에서 성 평 의학박사는 일반 의학 상식을 비롯해 치매 증상의 설명과 예방 그리고 치매 지연에 중요한 점들을 설명했다. 회원들은 점심 식사 후 토의 사항을 점검하고 월례회를 마무리했다.

안나회

지난 17일(일) 10시 미사 후에 안나회 월례회가 열렸다. 백인현 주임신부는 "마음을 다스리고 곱게 쓰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 질 수 있다"며 "노여움 없는 삶이야말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느님과 함께 하는 행복한 삶"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2월에 생일을 맞는 자매들을 함께 축하했다. 회원들은 부페식으로 푸짐하게 준비된 점심을 먹으며 친교를 나누었다.

◎ 대학교 방문 및 미사

■ VTech 방문

- 일시 : 2월 28일(목) 고해성사 - 오후 5시, 미사 - 오후 5:30
- 장소 : Lavery Hall 350

■ UVA 방문

- 일시 : 3월 1일(금) 고해성사 · 미사 : 오후 5시
- 장소 : New Cabell Hall 111

■ 문의 한승진 아네스 (703)470-2171

◎ 2019년도 하상 한국학교 여름학기 안내

- 수업 기간 : 2019년 6월 17일 - 7월 26일(6주)
(월 - 금, 오전 9:30 - 오후 3:30)
- 접수 : 3월 9일(토) 오전 9시 - 오후 12시(교무실)
- 입학 대상 : Rising K - Rising 12th
- 학비 : 등록비 \$50 / 첫째 \$540, 둘째 \$520, 셋째 \$500
- 본당 웹사이트에서 등록 서류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성당 프로그램 > 하상 한국학교 > 2019 여름학기 안내)
- 문의 : 육옥영 교감 (703)598-5540

◎ 2019년도 하상 성인학교 봄학기 안내

- 교육 일정 : 3월 5일 - 6월 7일까지
- 등록 접수 : 3월 3일까지(8시, 10시 미사 후)
- 개강일 : 3월 5일(화) 오전 9:20
- 등록금 : \$50(전 과목), 점심 제공 · 대상 : 전 교우 및 일반인
- 문의 : 김명희 율리야나 교장 (703)217-2775

1 재의 수요일 예절 및 미사

- 일시 : 3월 6일(수) 오전 11시, 오후 8시(단식과 금육)
- 작년 성지주일에 나누어 드린 성지가지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2 2019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 약정

- 매년 사순 시기 동안 주교님 사목 보조비를 약정받습니다. 2019년 우리 본당에 할당된 금액은 \$156,000입니다. 많은 기도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유아세례

- 일시 : 2월 24일(일) 오후 3시, 성당

4 교육부 세미나(세금보고)

- 일시 : 2월 24일(일) 오전 11:30(A-1,2)
- 주제 : 변경된 세금보고 내용
- 강사 : 차경태 대건 안드레아 (공인 회계사, Cha Group LLC 대표)
- 문의 :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5 요한회 월례회의(50대 교우)

- 일시 : 2월 24일(일) 오전 11:30(하상관)

6 루카회 월례회의(60대 교우)

- 일시 : 2월 24일(일) 오전 11:30(하상관)

7 레지오 마리아에 간부 교육

- 일시 : 2월 24일(일) 오전 11:30 - 오후 4시 (A-3,4, B-1,2,3,4)
- 본당 하늘의 문 꼬미시움 소속(6개), 워싱턴 성당, 볼티모어 성당 (2개 한인 꾸리아)가 간부 재교육을 실시합니다. 대상자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정선화 루시아 (703)399-9971

8 복사단 모임

- 일시 : 2월 24일(일) 오후 1:30(A-1,2)

9 성체강복

- 매월 첫 금요일(3월 1일) 미사 후에 '성체 강복'을 거행합니다.
- 많이 참석하여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0 하상 성인학교 강사 회의

- 일시 : 3월 3일(일) 오전 11:30(A-3)

11 제80차 예비신자 모집

- 입교식 : 3월 3일(일) 오전 11:30(하상관 #110)
- 등록 : 매 주일 선교부 테이블(8시, 10시 미사 후)
- 문의 : 원철희 토마스 (703)203-0332
사무실 (703)968-3010

12 회장단 회의

- 일시 : 3월 1일(금) 오후 8:20(회의실)

13 구역임원 교육

- 일시 : 3월 3일(일) 오전 11:30(B-1,2)

14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 3월 3일(일) 오후 1시(B-1)

15 청소년 사도회

- 일시 : 3월 3일(일) 오후 1시(B-3,4)

16 K of C Car Raffle 티켓 판매

- 티켓 판매 :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Raffle 티켓 \$5/1장)
- 판매 기간 : 4월 14일까지
- 상품 : 자동차 5대, 현금(\$20,000)
- 판매된 기금은 청소년(Work Camp)을 위해 사용됩니다.
- 문의 : 하성수 다니엘 (703)201-4727

17 구역별 NG(구 IBM) 주차 주일 안내

- 구역부에서 주차 협조의 일환으로 각 구역별로 NG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주일	구역
첫째 주	페어팩스 3, 버크
둘째 주	센터빌, 비엔나, 알렉산드리아
셋째 주	라우든, 프린스 윌리엄, 페어팩스 2
넷째 주	페어팩스 1, 애난데일, 스프링필드



재활용 프로그램에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황님의 3월 기도 지향

복음화 지향: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권리 인정
그리스도교 공동체, 특히 박해받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계심을 느끼며 그들의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금주의 행사 >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2월 24일(일)	연중 제7주일	요한회(오전 11:30, 하상관), 루카회(오전 11:30, 하상관), 교육부 세미나(오전 11:30, A-1,2), 79차 세례자 환영식 (오전 11:30, 하상관 #110), 복사단 모임(오후 1시, B-1,2), 레지오 간부회의(오전 11:30, A-3,4, B-1,2,3,4), 요한회 총회(오후 1:15, 친교실), 유아세례(오후 3시, 성당)
25일(월)	연중 제7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26일(화)	연중 제7주간	평일미사(오후 7:30), 성경 기도회(오후 8시)
27일(수)	연중 제7주간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평일미사(오전 11시), 성서 통독반(오후 7:30), 학생 건진반 개강
28일(목)	연중 제7주간	평일미사(오전 6시)
3월 1일(금)	연중 제7주간	평일미사(오후 7:30, 성체강복), 회장단 회의, 로고스 새신자 오리엔테이션
2일(토)	연중 제7주간	평일미사(오전 7시), 레지오 마리아(오전 9:40, 친교실), 혼배성사(오후 3시, 성당), 파티마 첫 토요일신심(오후 6:15, 성당)
3월 3일(일)	연중 제8주일	구역임원 교육(오전 11:30, B-1,2), 성모회 임원회의(오후 1시, B-1), 청소년 사도회의(오후 1시, B-3,4), 성인학교 강사회의(오전 11:30, A-3)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7주간 : 2 마가 6-9, 로마 10

KACM TV 하이라이트

2월 28일(목) 오후 5:00-6:00
3월 1일(금) 저녁 8:00-9:00
3월 3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 가톨릭 뉴스
- 신타이고 가는 길 : "역사를 걸으며 힐링을 담다" 1편

NGMS 주차장 ↔ 성당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오전 7:30 - 오후 1:30 (10분 간격으로 운행)

NGMS(옛 IBM) 주차장 주소

12900 Federal Systems Park Dr. Fairfax, VA 22033

- 타이슨스 코너 시니어 아파트 픽업: 오전 9:05
- 알링턴 7번코너 시니어 아파트 픽업: 오전 8:45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9년 2월 17일(연중 제6주일)

주일헌금	\$7,847.00
교무금	\$10,650.00
교무금(크레딧카드)	\$7,125.00
특별헌금	\$0.00
2차헌금	\$0.00
합계	\$25,622.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투에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윤규희(발바라), 정영금(데레사), 김영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종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전원후(마리아), 박제중(요셉), 김용구(베네딕토), 김영자(세레나),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가다), 오인균(바오로), 이수선, 백유미(세실리아), 안순경(모니카), 최재근(시몬), 김화순(세실리아), Lauren Maguire, 김광자(세실리아), 고필순(젤마), 이주원(카타리나), 최창일(토마스), 강애자(카타리나), 김정희(요셉), 전길두(베드로), 황수현(바오로), 박숙희(베로니카), 박윤희(스텔라), 박종재(가브리엘), 장미래(아네스), 한영광(스테파노), 권성희(소화데레사)

♥ 군복무자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철(루시아), 임현석(아비도), 손범기(펠릭스),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윤복참(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안토니오),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고미엘(마카렐라), 최용성(프란치스코),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종연(모세), 박홍모(이냐시오), 제임스 리(요한)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혼인공시

◆ Allen Fong Sr. 자: Kevin Allen Jr.
◆ 강세원씨 녀 : 강해리(엘리사벳)

- 일시 : 3월 2일(토) 오후 3시
- 장소 :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 이 두 사람이 혼인해서는 안될 어떤 사정을 아시는 분은 주임사제나 교구집권자에게 알려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알베르도) 703-508-7743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다니엘) 703-266-198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생명보험·은퇴연금 메디케어·롱텀케어 이정태 요셉 703-785-4494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형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로사) 703-772-7275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윌리엄)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703-832-7155	이용희 변호사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빈센트) 571-331-68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마르코) 센터빌, 체넬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메디케어 은퇴연금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크리스) D.D.S. 703-726-8804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레드핀 소독 사업체, 가정집, 해충방제 백상윤(미카엘) 703-881-1155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안나) 703-855-8575	Oh My Dog 애견 미용 방문 서비스 703-678-5301	영스 노인 복지센터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페어팩스 부동산 www.fairfaxrealty.com Nina Park 703-303-6993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신청과 다른 플랜 소개, 갖고 계신 플랜을 검토해 드립니다.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두통, 치매, 파킨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아리랑 시니어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센터빌 (IHOP 건너편) 703-543-6008	프렌즈 홈/데이케어 간병, 간호, 물리치료 서비스 문의: 마리아 막달레나 홈케어 703-231-6030 데이케어 703-424-7533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예비 펫 그루밍 강아지 Spa & 미용 703-815-1166	원 통증·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스킨 스튜디오 일인 피부 관리실 유연수(안젤라) 703-507-0053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금
-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허건 (베네딕토)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